

지역 매아리



고창군, 멜론 품종 선별 좌담회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6일 고창 지역에 적합한 멜론 품종을 선별하기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고창지역 멜론 연구회 임원진, 읍면상당소장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석교 교수(원광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좌담회에서 선보인 멜론은 총 28종(네트24종, 무네트 4종)으로 다양하게 준비된 여러 종류의 멜론을 시식 및 평가하고, 고창 멜론 품종의 육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멜론 품종들은 가을 작기에 다시 재배해 육종의 소재로 이용 될 예정이다. 한석교 교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고창 지역에 맞는 전용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94여명의 회원이 70ha의 멜론을 재배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명품멜론 브랜드 유지를 위해 올해에 농촌개발대학 수박멜론과 개설, 지역특색농업 발흥 소득화 사업, 고창멜론 명품화 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제45회 고창모양성제 홍보

고창군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모양성보존회 회원, 경제살리기여성회, 고창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5회 고창모양성제를 알리는 사진 홍보를 실시했다.

고창모양성제는 3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모양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고창모양성제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를 사전에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홍보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도내 관광지에서 모양성제 안내 리플릿과 지역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면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통의상인 노란 한복을 꼭게 차려입고 홍보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현충 시설물 정비 만전

정읍시, 1억2800만원 확보 호국영령 애국정신 기려

정읍시가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현충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2,800만원을 확보해 현충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총 26개소로서, 국가보훈처 지정시설 19개소, 비지정 시설 7개소가 있다.

시는 동의기념비(산외면 옹공리 소재)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주변에 간이 교량과 잔디 블록 등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1928년 이회복과 권영모, 민영석 등 34인이 발의, 창건하여 면암 최익현, 둔헌 임병찬 등을 향사한 하정사가 있었으나 사당은 소실됐다. 동의기념비는 이곳 인근에 있는 것으로 의천왕 이강이 쓴 비이다.

시는 충훈탑(장명동 소재) 참배객들이 대부분 연로한 점을 고려해서 계단에 난간 핸드 레일을 설치했고, 무명 전몰용사 묘역(산내면 매죽리 소재)에는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충훈탑은 6.25 전쟁 때 순직한 정읍의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9m



정읍시는 올해 1억2,800만원을 확보해 현충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의 탑이고, 무명 전몰용사 묘역은 6.25전쟁 중 공비 토벌을 위해 참전한 학도병 150여명의 시신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46위를 안장하고 묘역을 조성한 것이다.

시는 이어 하반기에도 백정기의사 기념관(영원면 은선리 소재,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정자 등 편의시설 도색과 함께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연중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습기에 약한 황토 담장의 훼손된 부분도 보수할 예정이다.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백정기의사기념관은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3의사로 불리

는 구파(鵬波) 백정기(白貞基, 1896~1934) 의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백의사는 1933년 중국 상해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아키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피체되어 1934년 6월 5일 일본 나가사키현 이시야마 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애국 투사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유족이 불편함이 없이 현충시설을 찾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나라와 민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충시설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멸 없이 지속가능한 부안 건설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 신성장동력 발굴 생동하는 부안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소멸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부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9일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 "민선7기 군정방향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으로 정했다"며 "이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미래로"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30년 후 사라지는 부안이 아닌 지속가능한 부안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세계로"는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부안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2023년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등



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넘치는 부안이 될 것"이라며 "부안군 공직자 모두가 이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는데 민선7기 부안군은 '주민을 스승과 부모 같이 섬기고 모시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자'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책상 등 사랑의 가구 기탁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회장 이점숙)이 최근 책상과 책장 등 사랑의 가구 20여점을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는 기탁받은 책상과 책장을 드립스타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옥순 센터장은 "기탁한 물품이 지역인재양성에 쓰이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해당화로타리클럽에 깊은 고마움을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더 좋은 정읍 나아가는 걸음에 보탬”

김인태 정읍부시장 취임

김인태 전(前)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9일 정읍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인태 부시장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정읍부시장을 맡게 돼 기쁜 마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의 합찬 발걸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정 목표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과 5대 방침인 ▲품격있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정읍이 더 좋은 정읍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다. 전북도 성과관리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과 개발, 문화관광 분야에 특히 탁월하다는 평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친구같은 부군수 될 것”

전병순 부안부군수 취임

전병순 부안군 부군수가 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친구같은 부군수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6일자로 부임한 전병순 부군수는 취임식을 생각하고 9일 열린 부안군 7월 월례조회를 통해 부임인사를 전했다. 전병순 부군수는 "풍요로운 고장이자 산과 들,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며 "평소 존경했던 권익현 부안군수의 군정철학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병순 부군수는 "민선7기 주요 공약의 세부실천과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급 간부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점을 파악해 바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병순 부군수는

"주민은 물론 공무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사적인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소통행정에 힘써 친구같은 부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963년 전주 출생인 전병순 부군수는 1988년 공직에 들어와 전북도 새만금국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공보팀장·기획관리실 기획팀장·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장 등 도정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물놀이 관리지역 8개소 안전관리요원 배치

정읍시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지난 7일 칠보 고현교를 비롯한 물놀이 관리지역 8개소에 18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 또 인명 구조함 등을 정비하고 구명환과 구명로프, 구명조끼도 비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에 앞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안전관리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읍시 소방서와 연계, 심폐 소생술을 비롯 구명환과 구명로프 등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sanmyeongju.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